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촌 집 고쳐 주기' 사회공헌활동 실시

✎ 백성호 기자 | ⓒ 승인 2025.09.23 18:02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실시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18일 영주시 상줄동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상 가구는 장애인 세대로, 노후한 시설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지사 직원들은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활동은 ▲전기공사, ▲설비공사(비가림막 및 연탄보일러 교체 등), ▲창호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순 정비가 아닌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경환 영주봉화지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호 기자 bsh2646@daum.net